

# 방통위 중국 저장성 출장 결과

-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전자기술 최신 동향 파악 -

◆ 기 간 : '15. 5. 26(화) ~ 5. 29(금)

◆ 방문지역 : 중국 (상하이, 원저우, 항저우)

2015. 6.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I. 출장 개요 .....	2
II. 세부 활동 .....	3
1.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ASIA 참관 .....	3
2. 원저우시 정부 방문 및 방송분야 협력 MoU 체결 .....	8
3.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방문 .....	14
4. 저장 라디오TV그룹 방문 .....	20
III. 참고 자료 .....	25

# 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한류 방송 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 양국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국제 전자기술 발전의 최신 동향 분석

2. 출장 국가 : 중국(상하이, 원저우, 항저우)

3. 출장 기간 : '15년 5월 26일(화) ~ 29일(금), 3박 4일

## 4. 출장자

소속	성명	직급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
	박명진	국제협력팀장
	장좌영	주무관
	김성환	상임위원 비서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강상현	주임연구원

\* EBS 송대갑 대외협력부 부장, EBS 문현식 글로벌콘텐츠부 차장, CJ E&M 김영찬 중국사무소 부장, JTBC 봉지욱 기자 동행

## 5. 주요 활동

- (원저우시, 항저우시) 방통위-원저우시 간 MoU 체결, 원저우시 시장 및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회장, 저장 라디오TV그룹 회장 등 면담, EBS·CJ E&M 등 방송사별 MoU 체결 및 프로그램 교류 계약 협의
- (CES ASIA 참관) 방송통신 분야를 포함한 국제 전자기술 발전의 최신 동향 파악

## II. 세부 활동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ASIA 참관

- 일시 /장소 : '15.5.26 14:00~16:00, 신국제 박람회 센터(상하이)
- 참석자 : 김재홍 상임위원, 국제협력팀장, 비서관, 국제협력 주무관  
\* 봉지욱 JTBC 기자 동행 취재

- 동행자
  - (미래부) 이석준 1차관, 박상민 비서관, 김성철 주중 과기정통관 등
  - (상하이 총영사관) 한선희 총영사, 강승준 재경관, 정경록 상무관 등
  - (KOTRA) 이민호 상하이무역관장, 김서웅 과장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조경매 팀장(통역)

#### < CES ASIA 개요 >

- 일반현황
  - 행사명 : 국제가전박람회 아시아(Consumer Electronics Show ASIA 2015)
  - 장소 : 중국 상하이 / 신국제 박람회 센터
  - 기간 : 2015년 5월 25일(월) ~ 27일(수), 3일간
  - 면적 : 20,000 sq. meters
  - 참가기업 : 15개국 220여개사(참관객 : 약 1.5만 명)
  - 주최 : CEA(Consumer Electronic Association), Intex Shanghai
  - 특징 :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CES 전시회로 주요 글로벌 기업 및 15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
- 전시품목
  - 3D 프린팅, 자동차 전자제품, 콘텐츠 및 온라인, 녹색 기술, 건강, 홈 엔터테인먼트, 생활, 모바일, 로봇, 스마트 홈, 스포츠 및 피트니스, 비디오 게임, 영상가전 및 4K UHD, 웨어러블 등
- 주요 참가기업 : 삼성, 인텔, IBM, 아우디, China Mobile, BesTV 등
  - 자동차 : 아우디, 캐딜락,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링컨, 폭스바겐 등
  - 엔터테인먼트 : XBOX China, 인텔(Intel), DTS 등
  - 기타 : Hisense, Voxx, Scosche, ZAGG 등

## □ 주요 참관내용

### 【개요】

- 아우디, 차이나 모바일, 포드, IBM, 인텔, JD.com, 폭스바겐을 포함, 200여 개의 소비자 가전 기업들이 전자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소개

###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

<IoT 사설 네트워크와 원넷 오픈 플랫폼(OneNet Open Platform)>

- 차이나모바일의 사설 네트워크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며 다양한 단말기 제품의 액세스를 제공
- IoT 사설 네트워크는 실시간 정보 접근 및 고화질 통신 등 기업을 위한 전문 네트워킹 통신 관리 기능도 지원

### 【포드(Ford)】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마이에너지 라이프스타일(MyEnergi Lifestyle) 시범 프로그램>

- 이 모빌리티 프로그램은 도시화와 인구 밀집이 가속화되는 세계를 위해 접근이 가능하고 저렴한 교통 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
- 시범 프로그램은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효율적 어플라이언스, 플러그인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결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

## 【JD.com】

<딩동 스마트 스피커(DingDong Smart Speaker), 일레클라우드 무선 스마트 충전 지원 저장장치(EleCloud Wireless Smart Rechargeable Storage Device)>

- 음성제어 장치인 ‘딩동 스마트 스피커’(DingDong Smart Speaker)’는 인터넷상의 제3자 소스로부터 뉴스 및 날씨, 약 300만 곡의 노래와 400만 시간의 오디오 콘텐츠를 불러올 수 있음
- 창홍(Changhong)의 ‘일레클라우드 무선 스마트 충전 지원 저장장치(EleCloud Wireless Smart Rechargeable Storage Device)’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외장 충전기로 무선 공유와 고속 플래시 드라이브 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

## 【폭스바겐(Volkswagen)】

<자동주차(Trained parking)와 골프R 터치(Golf R Touch)>

- 자동 주차기술은 백미러 베이스에 탑재된 카메라를 사용해 평행 및 직각 주차 공간에 경로를 스캔하고 반자동으로 차량을 주차, R터치는 동작인식 기능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된 컨셉트카

<붙임① - 참관 현장 사진자료 >



<ANKER(중) 부스 방문>



<Hisense(중) 부스 방문>



<JDsound(한) 부스 방문>



<SOSO H&C(한) 부스 방문>



<SoundUX(한) 부스 방문>



<Suning(중) 부스 방문>

<붙임②- 참관 현장 사진자료 >



< Tium solutions(한) 부스 방문 >



< Wedu communications(중) 부스 방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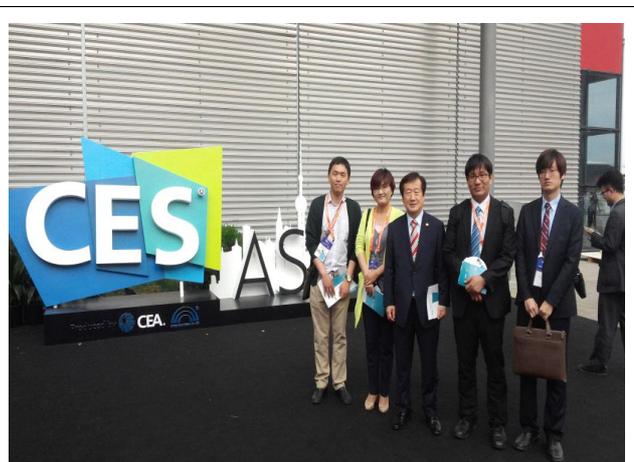
< Yookyung(한) 부스 방문 >



< Mercedes Benz(독) 부스 방문 >



< Volkswagen(독) 부스 방문 >



< 행사장 앞 대표단 단체사진 >

## 원저우시 정부 방문 및 방송분야 협력 MoU 체결

- 일시 /장소 : '15.5.27 10:30~12:00, 원저우시 정부청사
- 참석자 : 쉰 리이(徐立毅) 시장, 후 강가오(胡纲高) 부시장, 주 웨이중(周怀中)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 < 원저우시 개요 >

- 면 적 : 육지면적 11,784km<sup>2</sup>, 바다면적 약 11,000km<sup>2</sup>
- 인 구 : 약 912만 명('14년 기준)
- 위 치 : 저장성 동남부에 위치하며, 북부는 타이저우시, 서부는 리수이시, 남부는 푸젠 성에 인접
- 경 제
  - 원저우는 중국 민영경제의 발원지이며, 개혁개방 이후 '원저우모델'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룸
  - 거대한 민간자본과 발달된 산업분야로 민영경제의 본보기가 됨
  - 개인 상호 40만 개와 민영기업 10만 곳이 등록되어 있고 전자기기, 피복, 신발, 펌프밸브, 자동차 부품이 원저우 대표산업임

### 0 주요 내용 요약

- 김재홍 상임위원과 쉰 리이 원저우시장은 한국과 원저우시 간의 방송분야를 비롯한 산업협력 현황, 방송분야 정책 및 시장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이번에 체결되는 방통위-원저우시 정부 간 방송분야 MoU가 가진 깊은 의의를 확인
- 향후 한·중 양국의 FTA에 바탕하여 방송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 세부 면담내용

#### 【원저우시 개황 소개】

- (김재홍 상임위원) 지난 3월에 사전답사 차 원저우시를 방문하였을 때 원저우시가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지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오락, 미디어 분야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

- 한국민과 중국 국민은 역사와 문화가 유사하고 특히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 우애, 이웃과 직장동료 간 상부상조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를 공동제작해 나가는데 매우 좋은 파트너임.
- (쑤 리이 시장) 김재홍 위원님을 비롯한 방통위 대표단의 두 번째 원저우시 방문을 환영함
  - 원저우시는 저장성 내에서 항저우시, 닝보시와 더불어 손꼽히는 대도시이며, 바다와 산천이 공존하는 다양한 지리적 구조로 구성됨
  - 중국 내 개혁 및 개방을 선도해 왔으며 작년에는 원저우시의 진일신 당서기가 대표단을 구성하여 한국을 방문, 각계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함
  - 아울러 원저우시 내에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

### 【양국 산업 간 협력 현황】

- (쑤 리이 시장) 한국은 의류, 화장품 등 제조업 분야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분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기대
  - 원저우시에는 방대한 수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신발, 기계부품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이 많다고 생각

### 【방송분야 협력 기대】

- (김재홍 상임위원) 이번에 체결되는 방통위 - 원저우시 정부 간 방송 분야 MoU, EBS 및 CJ E&M - 원저우라디오TV미디어그룹 간 MoU가 양국 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상호 취재지원 등 실질적 교류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

- 특히 원저우TV에서 제작할 예정인 '원저우 패밀리'의 시즌3를 한국에서 촬영할 때 한국의 역량 있는 방송사가 MoU 내용을 바탕으로 협력 및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번 MoU체결은 '14. 11월에 타결된 한-중 FTA 방송분야 합의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문화, 미디어 산업 간 교류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
- o (쭈 리이 시장) 한국과 원저우시 간 합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으며 이번 MoU체결이 방송분야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
- 국제적으로 문화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원저우시 간 방송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램
- 방송분야에서의 합작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생각

###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 o (김재홍 상임위원) 한국의 경우 직장생활의 애환을 다룬 소재 등이 시청자로부터 큰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원저우 상인의 세계 시장 개척 등과 같이 양국의 시청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재 확보가 합작의 중요한 성공 요소로 보임
- 교훈과 오락성을 겸비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등이 중요하며, 양국의 방송 협력이 궁극적으로 시청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램

- 원저우시를 비롯한 저장성 지역을 한국에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추천
- (쑤 리이 시장) 중국의 각 방송사에서는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해져가고 있으며, 특히 가정생활을 소재로 시청자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드라마 작품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음
- 오늘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에서 한국 방송사와의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를 바람
- 비록 지금까지 원저우 지역에서는 외국과의 방송분야 협력 사업이 전무하였지만, 원저우시가 큰 수요와 시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붙임① - MoU 체결식 사진자료 >



< 방통위 - 원저우시 정부 간 방송분야 MoU 서명(김재홍 상임위원-후 강가오 부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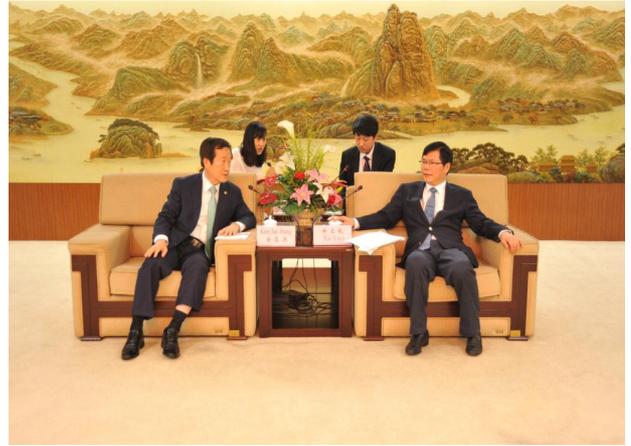


< MoU 서명 후 단체기념사진 >

<붙임② - 면담 사진자료 >



< 원저우시 정부 환영인사 >



< 양측 대표 면담 >



< 양측 대표단 면담 전경 >



< 면담 후 선물 교환 >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방문 및 한국 방송 콘텐츠 시연

- 일시 /장소 : '15.5.27 14:00~16:00,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내 회의실
- 참석자 : 양 수후이(楊速輝) 원저우TV 회장, 후 지안진(胡劍謹) 원저우시 상무위원 (선전부장) 등

###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개요 >

- 명 칭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 그룹(이하 '원저우TV')  
(溫州廣播電視傳媒集團, Wenzhou Radio & TV Media Group)
- 위 치 : 저장성 원저우시 신성대도 39호(浙江省 溫州市 新城大道 39号)
- 설 립 일 : '10. 12. 23.(원저우시 내 미디어그룹을 하나로 통합해 탄생)
- 총 자 산 / 직원수 : 약 23억 위안(약 4,100억 원) / 1,400여 명
- 사업영역 : TV, 라디오 등
- 채 널 : TV 5개, 라디오 5개. 총 10개 채널을 소유
  - T V : 新聞綜合(뉴스), 經濟科教(경제과학), 都市生活(도시생활), 公共頻道(공공), 瓠江先鋒(구강개척)
  - 라디오 : 溫州之聲(뉴스 방송), 交通廣播(교통라디오), 音樂之聲(음악의 소리), 經濟生活(경제생활), 綠色之聲(녹색방송)
  - 일일 170시간 이상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며, 저장성 및 푸젠성 지역의 1,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커버

### 0 주요 내용 요약

- 김재홍 상임위원과 양 수후이 원저우TV 회장은 양국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시연을 관람, 양국 방송 산업 시장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모델을 논의
- 양측은 이번에 체결되는 EBS·CJ E&M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간 방송분야 MoU를 계기로 양국 방송 사업자 간 협력이 양질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

## □ 세부 면담내용

### 【EBS와 CJ E&M 등과의 교류 희망】

- (김재홍 상임위원) 한-중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상호 방영이 원저우를 한국에 알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
  - CJ E&M은 이미 '중화TV' 채널을 통해 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한국 내에 방영 중
  - 원저우TV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 '원저우 패밀리'가 한국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작된다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될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
- (후 지안진 상무위원) EBS는 교육분야에서 특화된 역량을 가졌으며, CJ E&M은 국제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는 점에서 이번 MoU를 계기로 많은 것을 교류해 가며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원저우TV는 방송 산업에서의 시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다양한 한-중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
  - 합작 프로젝트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히 관계를 이어가길 바람

#### < 교류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사업자 의견 >

- \* (EBS) EBS와 원저우TV 간에 MoU가 체결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EBS가 유아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수준급 역량을 보유한 만큼 향후에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
- \* (CJ E&M) CJ E&M은 원저우TV측에서 제작 중인 '원저우 패밀리'의 공동·협력 제작에 관심이 있으며, 본 그룹이 중국에서 게임, 음악,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넓은 영역에서의 합자·합작 기회가 있기를 바람
  - 중화TV는 CJ E&M이 보유한 18개의 유선채널 중 하나로 24시간 중국의 드라마 및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영

## 【현지 취재 시 협조】

- (김재홍 상임위원) 방통위 - 원저우시 정부 간 MoU에 양국 상호 취재 시 협력에 관한 내용이 있으므로, 원저우시 기자단이 한국을 취재차 방문한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원저우시와 한국 방송사 간 협의를 위한 중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
- (후 지안진 상무위원) 가까운 시일 내로 원저우시에서 대규모 기자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취재를 할 예정인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협조해 주시길 바람
  - 원저우시에서도 한국측에서 원저우 현지에서의 취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음

## 【CCTV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 (양 수후이 회장) '원저우 패밀리' 등의 인기 프로그램은 중국중앙 텔레비전(CC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되고 있으며 CCTV로부터 제공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

## 【CJ E&M과의 영화관 사업 협력】

- (양 수후이 회장) 지난 3월 김재홍 위원 방문 때 논의되었던 CJ E&M의 원저우시 내 영화관 건립 건은 현재 선전부\*에 보고가 완료된 상태이며 영화관 건립의 영향 등을 검토하는 중, 원저우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직속 기구로 각 지역 당에 선전부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산당의 사상이나 노선의 선전, 교육, 계몽을 위해 신문, 출판물,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의 감시를 담당

## 【'원저우 패밀리'의 한국 촬영】

- (김재홍 상임위원) '원저우 패밀리'의 공동제작 프로젝트가 상호 유익한 경험이 되고, 결과물이 높은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PD, 배우 등 제작인력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가가 한국의 문화와 행동 양식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
  - 오늘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과 MoU를 체결한 CJ E&M에는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특화된 인력들이 많으므로 상호 인력 활용에 대해 논의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
  - CJ E&M은 드라마 외에도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등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으며, 근래에는 중국의 성·시정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촬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중국에서도 인기
- (양수후이 회장) 현재 본사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인 '원저우 패밀리'의 판권 수출을 통한 한국 방영을 추진 중이며 시즌3의 한국 현지 촬영이 이루어진다면 방통위측 협조를 요청드릴
  - '원저우 패밀리' 외에도 한국측 방송사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발견되면 적극 나설 것이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EBS와의 공동 제작 및 협력 가능성을 발견

## 【한국 방송사 방문 계획】

- (양수후이 회장) 한국 콘텐츠 업계의 영화 및 드라마의 제작에 관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올해 하반기 내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통위측 협조가 필요
  - 현재 '21세기 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前 총무처 장관)를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음

<붙임① - MoU 체결식 사진자료 >



< EBS-원저우TV 간 MoU 서명 >



< CJ E&M-원저우TV 간 MoU 서명 >



< MoU 서명 후 선물 교환 >



< MoU 서명 후 단체기념사진 >

<붙임② - 프로그램 시연 및 원저우TV 견학 사진자료 >



< CJ E&M 프로그램 시연 >



< EBS 프로그램 시연 >



< 원저우TV 프로그램 시연 >



< 원저우TV 제작시설 견학 >

## 저장 라디오TV그룹 방문 및 한국 방송 콘텐츠 시연

- 일시 /장소 : '15.5.28 10:00~11:30, 저장 라디오TV그룹(ZRTG) 내 회의실
- 참석자 : 왕 통위엔(王同元) ZRTG 회장, 첸 광주(陈方柱) ZRTG 총 편집실 주임, 왕준(王俊) 저장위성TV 사장 등

### < 저장 라디오TV 그룹 개요 >

- 명 칭 : 저장 라디오TV그룹(이하 '저장TV')  
(浙江廣播電視集團, Zhejiang Radio and Television Group)
- 위 치 : 저장성 항저우시 모간산로 111호(浙江省 杭州市 莫干山路111号)
- 설 립 일 : 2001.11.8(저장성 내 미디어그룹을 하나로 통합해 탄생)
- 영 향 력 : 중국 10대 미디어 기업, 중국 500대 브랜드기업
- 총 자 산 : 22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 순익 3억 달러(약 3,300억 원)  
\* 2014년 기준
- 종사자수 : 6,800여 명
- 회사이념 : 발전, 근면, 책임, 감사(勵志、勤奮、盡職、感恩)
- 사업영역 : TV, 라디오, 홈쇼핑, 영화, IPTV 등
- 채널 : TV 12개(홈쇼핑1개 포함), 라디오 8개. 총 19개 채널을 소유
  - T V : 저장위시(浙江衛視), 전강도시(錢江都市), 경제생활(經濟生活), 영시오락(影視娛樂), 호역구(好易購) 등
  - 라 디 오 : 저장지성(浙江之聲), 재부업파(財富廣播), 음악조빈(音樂調頻) 등

### 0 주요 내용 요약

- 김재홍 상임위원과 왕 통위엔 ZRTG 회장은 한국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 시연을 관람, 치열해지는 중국 내 방송시장 동향 및 방송분야 교류협력 현황 등 정보를 공유
- 양측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의 방송 사업자간 협력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프로그램 판권 수출입 및 공동제작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동의

## □ 세부 면담내용

### 【한-중 방송분야 교류 확대 희망】

- (김재홍 상임위원) 저장성은 경제·문화적 수준이 높아 향후 한국과 방송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 비록 이번 기회에 한국 방송사와 저장TV간 MoU가 체결되지 못해 아쉬우나 근시일 내로 성사되도록 깊이 있는 대화가 있기를 바램
  - 한국의 EBS는 유아 및 교육 프로그램, CJ E&M은 여행, 예능, 연예 등 프로그램 제작에서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TV측의 좋은 협력 상대가 될 것임
- (왕 통위엔 회장) 근래 한-중 양국의 외교적 관계가 우호적이고 특히 저장성 지역은 한국과 많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저장TV는 SBS 등 한국 방송사와 많은 합작과 교류를 진행 중이며 근래 '달려라 형제'가 많은 인기를 얻음에 따라 더욱 많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 다음 달(6.15 경)에 SBS측 사장단이 저장TV에 방문하여 더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저장TV는 중국의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의 방송사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개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한국측 협력대상 선정 기준】

- (왕 통위엔 회장) 저장TV가 프로그램 협력 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은 높은 시청률 및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콘텐츠의 보유 여부임

- '달려라 형제'를 통해 거둔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저장TV 내 '전략발전연구소'에서 전 세계, 특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한국의 방송 업계를 모니터링하는 별도 팀조직을 구성
- 이는 중국내 방송사 간의 시청률 확보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임
- 저장TV는 SBS 등 한국 방송사와 많은 합작과 교류를 진행 중이며, 근래 '달려라 형제'가 얻은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

#### 【한국 방송사에 대한 조언】

- (김재홍 상임위원) 중국에서도 점차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려라 형제'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 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유아·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제작이 활성화되길 바람
- (왕 통위엔 회장) 중국의 각 위성 방송사는 3등급으로 구분되며, 저장위성TV는 1등급에 속함
  - 한국측으로서는 2, 3 등급 위성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수출입 및 공동제작 등 협력이 진행하기 수월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 수익과 문화적 파급력 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아울러 중국의 성급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제작비가 2천만 달러(약 221억 원)에 달하여 중소 방송사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 저장위성TV는 중국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서 한국의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교류협력의 대상이 된다면 거대 중국시장에서 큰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위성방송 >**

- \* 중국은 단일 중앙 지상파 방송사인 CCTV가 25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구로 방송되는 성급 위성방송이 35개 채널, 성급 지상파 방송 및 기타 지역 방송사 180여 개가 4,000개 이상의 채널을 보유
- \* 후난위성TV, 장쑤위성TV, 저장위성TV, 동방위성TV, 베이징위성TV가 5대 메이저 위성 방송으로 평가

- o '달려라 형제'의 성공에 대한 한국 내 평가를 잘 알고 있으며, SBS가 '달려라 형제'의 성공으로 현재까지 중국에서 거둔 수익이 '런닝맨'으로 한국에서 거둔 수익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만큼 중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크다는 것이며, 합작·합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방송사들의 제안을 언제든지 환영

**【방송기술 분야 협력】**

- o (김재홍 상임위원) UHD 및 주파수 활용 다채널 방송 등 방송기술 발전에 대하여도 한-중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바람
- o (왕 통위엔 회장) 세계적으로 방송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방송기술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
- 향후 뉴미디어 분야에서 한-중 간 다양한 형태의 합작 프로젝트가 진행되길 기대

<붙임 - 면담 및 프로그램 시연 사진자료 >



< 양국 방송분야 교류협력 방안 논의 >



< CJ E&M 프로그램 시연 >



< EBS 프로그램 시연 >



< 양측 대표 기념사진 >



< 방문기념 단체사진 >

### Ⅲ. 참고 자료

#### 해외언론 보도자료(원저우TV, 5.27자)

##### 【원저우시 정부 방문】



< 김재홍 위원 - 쑤 리이 시장 면담 >



< 방통위 - 원저우시 정부 간 MoU 체결 >

【원저우 라디오TV미디어그룹 방문】



< EBS - 원저우TV MoU체결 >



< CJ E&M 프로그램 시연 >



< 면담 및 쇼케이스 후 기념촬영 >



< 방송 제작시설 견학 >



# 보 도 자 료

2015년 5월 27일(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 (☎2110-1332) jjjang@kcc.go.kr

## 방송통신위원회,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와 방송교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중국진출, 지방정부 및 방송사와의 협력 확대 필요”

#### - 국내 방송사(EBS, CJ E&M)도 원저우라디오TV그룹과 MOU 체결 -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7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와 방송 콘텐츠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통위의 중국 성(省)급 지역 방송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방문단의 수  
석대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원저우시 정부청사에서 서립의(徐立毅)  
원저우시장과 함께 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양측의 방송분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  
속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MOU는 고위급 정  
책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대화 운영과, 양측 방송사의 상대국 현지 제작 및  
취재에 관한 협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원저우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한·중 FTA가 타결

된 후 양국 간 경제산업의 교류협력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지만 시장상황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중앙정부 및 중앙 방송사 외에 지역의 방송사들과도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이번 협력사례를 기반으로 정부가 중국시장 진출의 경험이 없는 방송사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상임위원과 동행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CJ E&M 방문단은 현지에서 원저우라디오TV 그룹과 각각 방송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원저우시는 중국 개혁 개방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인구 900여만 명의 경제도시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화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원저우상인의 근거지로 광주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다. 서립의(徐立毅) 원저우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은 의류, 신발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교류가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방송 미디어 등 문화 산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MOU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28일 항저우로 이동해 저장성 정부 및 저장TV와의 방송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끝>

2015. 5. 28.(목)



## 보 도 자 료

2015년 5월 2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 (☎2110-1332) jjjang@kcc.go.kr

# 방송통신위원회, 저장TV에 한중 FTA 후속 방송교류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제안

## - 저장TV에서 EBS와 CJ E&M 주요 프로그램 현장 시연 -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국 성급 방송사 방문단(수석대표 김재홍 상임위원)은 28일 저장라디오TV그룹(이하 저장TV)을 방문해 한중 FTA 타결 후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상임위원은 저장TV의 왕통웬 회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과 드라마 및 연예 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구체적 교류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콘텐츠 교류 외에도 UHD 기술(초고화질 영상)과 MMS(다채널방송) 등 방송기술 발전 동향을 설명하고 이 분야의 협력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저장TV는 이미 성공적인 방송교류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 "이제 여행, 연예, 오락 프로그램 등 공동제작 분야를 좀더 다양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저장TV의 왕 회장은 "한국의 콘텐츠 중 좋은 작품을 골라 중국 시청자들에게 방송하겠다"며 한국 방송사 간의 경쟁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중국 방문단은 동행한 EBS가 준비해온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CJ E&M의 '갯 잇 뷰티' 등 주요 프로그램의 미니 시연회를 가졌으며, 왕 회장은 시연된 한국 콘텐츠들을 자료로 받아 검토하라고 즉석에서 콘텐츠 책임자에게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끝>

2015. 6. 2.(화)



## 보 도 자 료

2015년 6월 2일(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재홍 상임위원(☎2110-122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2110-1331)

국제협력팀 장좌영 주무관 (☎2110-1332) jjjang@kcc.go.kr

### 방통위, 중국 원저우시와 방송교류 MOU 체결

**김재홍 상임위원,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진출에 난관형성"  
"방통위-콘텐츠제작사 협의체로 전략적 대처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국 지역방송사 방문단 수석대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6월 2일 "한국 방송콘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에 초반부터 난관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방송사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사들과 방통위가 긴밀하게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큰 좌절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상임위원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라디오 TV미디어그룹 및 저장라디오TV미디어그룹을 방문, 고위간부들과 회담하고 방송콘텐츠 교류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한 뒤 귀국해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전체 방송콘텐츠 제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방송사들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통위가 이들 콘텐츠제작사들과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 가동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중국의 큰 방송사들이 벌써 한국의 방송콘텐츠 제작사들 간의 중국시장 진출경쟁을 의식하고 그 중에서 좋은 콘텐츠만 골라서 수입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 방송사들 간의 과열경쟁을 막고 다양한 콘텐츠를 중국 방송사들에게 배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방통위-콘텐츠제작사 협의체가 긴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EBS와 CJ E&M, 원저우TV와 저장TV에서 콘텐츠 시연 원저우TV와 공동제작 등 추진위한 MOU**

방통위의 중국 지역방송사 방문단은 저장성 원저우 시정부 및 원저우TV와 저장TV를 방문하여 동행한 EBS와 CJ E&M의 콘텐츠 시연행사를 갖고 방송콘텐츠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MOU)들을 체결했다.

방문단 수석대표인 김재홍 상임위원은 27일 오전 원저우 시정부 청사에서 쑤리이(徐立毅) 시장과 회담하고 방통위와 원저우시 간의 방송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으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각 분야별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양국 간 방송분야 교류협력이 확대 발전되려면 중국의 시청자가 세계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방송사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저우시는 920만 명의 인구규모에 78만여 개의 중소 민영기업이 활동, 중국에서 손꼽히는 경제중심지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세계 화교 상인들의 출신지로 유명한 도시다. 원저우TV는 이 도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미디어그룹이다.

김 위원은 이날 "중국의 경제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문화와 미디어 오락산업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 국민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관계에서 우의와 상호부조 등의 아시아적 가치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방송콘텐츠의 공동제작이 매우 좋은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과 방문단은 이날 오후 원저우라디오TV미디어그룹에서 양수후이(楊速輝) 회장과 회담하고, 동행한 EBS와 CJ E&M은 콘텐츠 시연회 후 원저우TV와 각각 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원저우TV가 추진 중인 '원저우가족 시리즈 3'의 내용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민영기업이 수행한 공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콘텐츠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큐드라마 제작의 역량이 축적돼 있는 CJ 소속 방송사가 매우 적합한 공동제작의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 **저장TV, "경쟁하는 한국 방송콘텐츠 중 골라서 사겠다"**

이어 방통위 대표단은 28일 저장성 항저우 소재 저장TV의 왕통위엔(王同元) 회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과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고위인사들은 드라마와 연예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 위원은 한중 양국이 똑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특히 유아-어린이-청소년뿐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앞서가는 EBS가 매우 좋은 교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에 대해 왕 회장은 "한국 방송콘텐츠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할 정도로 한국에 질 좋은 방송 콘텐츠가 많다"고 하면서 "경쟁적인 콘텐츠들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 한국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 디지털산업' 세계 1위 상품 생산 위해 더 노력해야" "편의주의 예방, 인간중심의 디지털문화 정책 병행 필요"**

이에 앞서 김 위원과 방문단은 26일 상하이 가전박람회(Consumer Electronic Show: CES)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은 "한국의 디지털산업은 세계 1위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속도있게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또한 그에 못지않게 편의주의와 인간소외를 예방하고 인간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디지털 성찰의 문화'가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